

태무 쇼핑물

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걱정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4일(현지시간) 알렸다.

저널은 공급망 혼란 속 올라간 물가에도 여전히 구매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기업들도 재고를 자연스럽게 늘려 쇼핑 시즌 수입 부진 우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.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.4% 늘어 전문가 예상치 1.3% 증가를 상회하며 근래에 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 12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4월 잠시 뒤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.



자동차, 휘발유,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.7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다수인 전문가가 4분기 해외총생산(GDP)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을 것입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. 월마트는 3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.1% 늘렸다면서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전망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혀졌다. 월마트는 6년 이상 영업해 전년 실적과 비교 가능한 가게들의 매출이 2분기에 9.6% 많아지는 등 구매자들이 신종 코로나19 감염증(코로나)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 또 이날 수입 1천404억 달러(약 165조원), 조정 주당순이익(EPS) 1.45달러 등 전공사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통보했다. 팩트셋이 집계한 전공사 예상치는 매출 1천353억3천만 달러, 조정 EPS 1.40달러였다. 단 순이익은 자금 증가의 영향으로 39억1천만 달러(약 8조6천400억원), 주당 1.11달러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.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4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9.4% 늘어난 368억2천만 달러(약 46조5천억원)의 매출을 기록, 월가의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다. 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동일한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대부분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. 또 소비자들이 작년 연단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올해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[태무쇼핑물사이트](#) 이번년도 크리스마스는 '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'이라고 관측했다.